

“거짓 역사 가르치는 나쁜 교육 용서 못해”

미국 뉴저지 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벌이는 김봉준·배문경 변호사 부부를 만났다. 두 사람은 최선을 다해 독도를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주진우·김은지 기자 ace@sisain.co.kr

10월25일은 독도의 날이었다. 미국 뉴저지 주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는 교육을 중단하라”며 소송을 벌이는 사람이 있다. 법무법인 김&배의 김봉준·배문경 변호사 부부다. 미국 뉴욕·뉴저지 주에서 아시아계 가운데 가장 큰 로펌을 운영하는 김변호사와 배 변호사는 미국 내 한인사회 문제에 대해 적극 나서온 것으로 유명하다. 10월 중순 서울에 온 두 사람을 만났다.

일본의 독도 관련 교과서 왜곡에 대해 미국에서 소송 중이라고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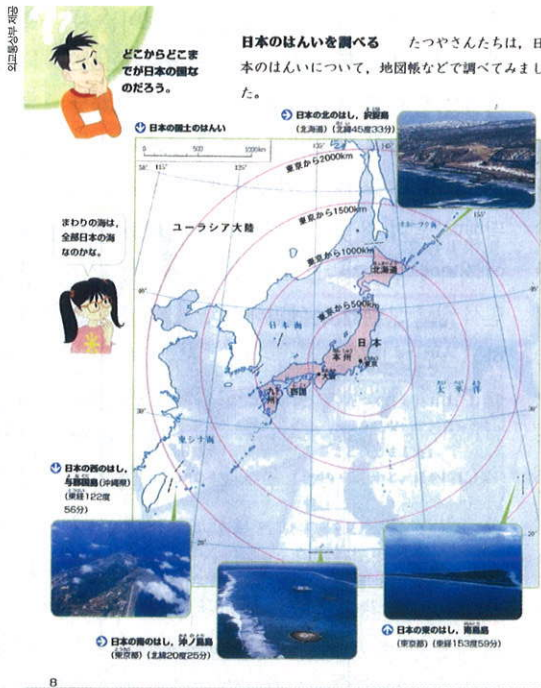
김봉준(김):미국 뉴저지의 일본인 학교(The New Jersey Japanese School)를 상대로 재미동포 최좌성씨가 9월24일 행정소송을 냈다. ‘독도는 일본 땅이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교과서를 사용하지 말도록 한 소송이다. 이 소송을 우리가 담당하고 있다. 소송에 나선 계기는 무엇인가?

김:단순히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차원이 아니다. 미국의 학교에서 어떻게 그릇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르겠지만, 미국 현지에서 있는 동포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하고자

나선 것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직접 제작했나?

김:일본 출판사에서 나온 교과서를 가져다 쓴다. 독도 영유권뿐만 아니라 바로잡아야 할 문제점이 많은 책이다. 이를 법원에서 조목조목 지적하려고 요즘 교과서 번역에 힘쓰고 있다. 아이들에게 진실이 아닌 거짓 역사를 가르치는 것



일본은 2011년도 일본 초등학교 교과서 지도(위)에 독도를 일본 영해에 포함하는 경계선을 그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은 막아야 한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주고 있나?

김:아직은 아니다.

배문경(배):이번 소송이 일본에서는 크게 화제가 됐다. 아마도 일본 정부가 나서서 사안을 키우는 것 같다. 10월10일자 <산케이신문>에 이 소송이 크게 보도됐다고 들었다. 야후 재팬 웹사이트 클릭 수도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관심이 적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나?

배:어마어마하게 큰 로펌이 상대방에 붙어 있다. 쉽지 않다.

어렵고 돈도 안 되는 소송 아닌가.

김: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배:뉴저지 일본 커뮤니티로부터 비난받을 각오를 하고 있다. 일본인 고객은 당연히 끊길 것이다. 그래도 해야 한다.

두 분 다 어릴 때 이민을 간 것으로 안다. 미국에서 한국인 이민자로 사는 것이 어떤가?

김:처음에는 한국어 간판 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한인이 많이 성장해 상류사회로 뻗어가고 있다. 한인에 대한 멸시는 이제 없다.

배:주류 사회 진입에 성공한 한국인 2세가 늘긴 했지만 여전히 힘들다. 우리가 맡은 안 아무개군 재판도 같은 맥락이다.

그건 또 무슨 재판인가?

배:뉴저지에 있는 펠리스 이지 파크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학생이 학교에서 사소한 주먹다짐 때문에 법정에 섰다. 점심시간에 새치기를 한 다른 민족 학생을 때렸다가 고소당한 거다. 그런데 상대 학생 부모가 안군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당일 300명 가까운 동포가 ‘안군을 구해주세요’라는 피켓까지 들고 왔을 정도로 한인 사회의 관심도 높았다.

한국인 학생만 형사법으로 문제 삼았나?

배:그렇다. 두 학생 모두 정학을 당했는데 한국인 학생만 형사재판까지 갔다. 한국